건축가 ± 건축사

± Architects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건축계는 다른 분야로부터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한국건축가협회 제 27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저는 협회의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2년여 동안 중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회장 이,취임 행사가 치러지는 내내 저는 강한 의욕과 동시에 참담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열린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기총회에서 건축단체 통합관련 협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건축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3단체가 함께 나누었던 통합에 대한 그 많은 논의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면서 각 건축 단체나 개인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느라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야 할 회장으로서의 임기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나 때문에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의 문제는 빼고 결정해도 좋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2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기저의 한 부분에는 건축가협회가 건축사협회 회원의 자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불신과는 작별해야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건축계는 다른 분야로부터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풍토를 이루어 내야하고 그런 가운데 아래와 같은 건축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장시간 동결된 혹은 삭감되고 있는 설계비의 적정화, 2. 건축설계사무소 규모의 양극화와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무소의 열악한 운영실태, 3. 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들의 배출로 연유된 수요, 공급 불균형 및 진로의 한계, 4. 인증원이 설립되어 있고 이미 많은 대학들이 실사와 인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인증원 근거법, 5. 건축기본법이 공포되고 해를 넘겼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중인 건축사법, 6. 협회통합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설계 · 감리 분리 문제 등에는 양분되어 생각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입장의 차이, 7.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메가톤급 사업에 대한 건축인들의 의견 표명 부진. 연일 매스컴을 달구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외국인마저도 솔깃하지 않은 송도 외국인전용단지개발,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왜 건축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소통과 교류의 장이 필요합니다.

통합이 성사됐더라면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에 동시에 등록함으로써 양 부처로부터의 지원 하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을 터인데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정기총회에서 협회통합에 대한 정관 개정은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의 탓만 하고 서로를 질타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사명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2007년 전국건축사궐기대회를 기억합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과천벌을 뒤흔든 설계겸업반대의 함성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여곡절을 거쳐 법안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함은 그럴 지경으로 건축계가 사회와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축과 사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했던 일방적인 사고와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벽을 헐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들의 속마음, 기대치, 미래, 희망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 건축사?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림 / LEE, Sang-Leem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공간그룹 대표
· 월간 공간 발행인 겸 편집인
· 한양대학교 박사, Hon.FAIA
· UNESCO Chair Professor
· 빌딩 스마트협회 회장